

“헌법 위에 선 교섭창구 단일화, 즉각 폐기가 답”

금속노조·민주노총, 헌재에 위헌 결정 촉구 ... “폐기 투쟁에 조직의 힘 모으자”

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투쟁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복수노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올 연말까지 헌재 앞 1인 시위 등 여러 투쟁을 이어간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복소리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시작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삼권을 짓밟는 위헌 제도”라며 “창구 단일화 때문에 사용자는 어용노조 육성과 산별교섭 무시라는 무기를 쥐었다. 노동자는 교섭권을 빼앗기고 노조파괴를 당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올 2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네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교섭 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나 참여하지 못한 신생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라며 “조합원 수에 따라 노동삼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고 기본권의 질적 차이를 용인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행사 방식을 일방 결정한다. 현행법상 개별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의 교섭 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단결권의 본질을 침해

박 변호사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도 박탈한다. 소수노조의 단체행동권은 결국 교섭 대표노조 결정에 좌우된다. 교섭 대표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데다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산별노조 교섭 무력화를 꼬집었다.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강제적용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산별노조 교섭을 방해한다고 강조한다. 박다혜 변

호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노동삼권 침해법, 노조파괴법인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즉각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나왔다. 황용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사무장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앞세운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빼앗기고 소수노조로 전락했다”라며 “창구 단일화로

교섭권과 파업권을 뺏긴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보쉬전장은 2012년 기업노조를 만들고 개별교섭을 벌였다. 당시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였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전환배치를 강요했다. 사측은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고의로 늦추고 기업노조에 힘을 실었다.

2014년 보쉬전장 사측의 조합원 수 몰아주기 공작으로 기업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됐다. 기업노조는 그해 임금 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합의했다. 보쉬전장지회는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잃은 뒤 사측 거부로 단 한 번도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다.

황용하 사무장은 “대한민국 최상위 기본법인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을 하위 제도인 창구 단일화 탓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라며 “이 제도가 헌법과 노동자 위에 설 수 없다. 반드시 없어야 한다. 소수노조의 비애로 치부하지 말자. 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에 더 힘을 모으자”라고 호소했다.

백성학 자해 · 먹튀 경영 막기 위해 노동자 뭉쳤다

대우버스 · OBS · 자일차판매노조 공동투쟁단 꾸려 ... “영안모자 계열사 구조조정 막겠다”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등 영안모자 계열사 노동자들이 모기업의 정리해고 강행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고용안정 보장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 대우버스사무지회와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 한국노

총 금속노련 자일자동차판매노동조합은 9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영안모자 백성학 우량기업 파괴 저지 공동투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계열사 구조조정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버스를 시작으로 OBS경인TV, 자일자동차판매에서 해고 구조조정과 사업 중단 · 축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모기업 영안모자에 대한 공동대응을 펼치기로 하고 공동투쟁단을 꾸렸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성학은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사들인 뒤 노동자 임금 · 복지를 삭감하고, 알짜배기 자산과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식으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백성학의 반사회적인 먹튀 행각을 널리 알리고 막기 위해 계열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화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백성학은 연속 흑자를 내은 대우버스 울산공장을 문을 닫고 우량 계열사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라며 “백성학의 후진 · 퇴행 회사 운영, 자해경영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병들고 있다.



금속노조와 공동투쟁단이 백성학을 막겠다”라고 결의했다.

백성학 측은 8월 31일 울산 대우버스 생산직 · 사무연구직 노동자 3백86명의 정리해고를 알렸다. OBS경인TV는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 사업 축소를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자일자동차판매(옛 대우자동차판매)도 휴업과 구조조정 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사측은 이미 받은 버스 주문계약과 생산계획을 아무 이유 없이 취소했다. 없는 위기를 일부러 만들어 코로나 19 위기 운하는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백성학의 작태를 멈추는 방법은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단이 가짜 위기 만드는 부도덕한 백성학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노동자 고용을 보장한다며 세금 혜택을 다 받아먹고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영안모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엄격한 감시와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안모자 계열사 쉼

어짜기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최지훈 노조 대우버스사무지회장은 “지회는 회사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올 초 코로나 19 사태와 부품 조달 문제가 터졌을 때도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회사를 위해 애쓴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울산 공장 폐쇄 소식이었다”라고 전했다.

최지훈 지회장은 “대우버스에 경영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가 없지만 백성학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구조조정으로 울산 공장과 자일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라며 “노동자는 영안모자에 더 당하지 않겠다. 공동투쟁으로 사측의 우량 계열사 파괴와 구조조정 추진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은중 언론노조 OBS 지부장은 “사측 강요에 임금 반납과 동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백성학은 사람을 줄여야 한다, 사업 접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방송 사업에 자신 없으면 하루빨리 본인 지분을 정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은중 지부장은 “좋은 방송을 만들어 OBS가 인천 경기의 언론으로서 사랑을 받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9월 23일 국회 앞에서 정부 ·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대우버스 사측이 정리해고일로 알려진 10월 4일 대우버스 울산공장 앞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LG의 두 얼굴, 정도경영 뒤로 노조파괴 시도

교섭 요구 묵살, 간부 고소·손배, 거짓말까지 ... 노조, “LG케어노동자, 금속이 케어한다”

LG전자 하이엠솔루션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케어솔루션 매니저들(방문·점검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하이엠솔루션은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즉시 이를 공고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9월 15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노동자 인정과 비상식적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사측은 일 시킬 때 노동자라더니 교섭을 요구하니 개인사업자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하이엠솔루션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지회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입맛대로 취사선택하지 말고 중노위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에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션의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세우고 지난 6월 17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매니저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이라며 노조를 불인정하고 교섭을 거부했다.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매니저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하이엠솔루션에 교섭절차를 시작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어김없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서울지노위 결정이 나던 날 직접 고용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노총 하이엠솔루션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했다.

지회가 복수노조 상황에서 다시 교섭 창



구 단일화를 절차를 위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또 무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8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중노위 결정이 있던 날, 기업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사측은 중노위 결정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G, 대한민국 법률·행정 깡그리 무시

지회는 사측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다가 기업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즉각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LG케어 노동자들은 이제 금속노조가 케어한다”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LG 그룹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최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며 기업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인정하라. 지금이라도 즉각 교섭에 나오라”라고 경고했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LG는 그룹

안에 금속노조를 만들면 복수노조를 만들고, 새로운 노무사를 채용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노조를 무력화한다. 이게 LG가 말하는 정도경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사측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노조를 흔들어 노동자의 단결을 깨려 한다고 비판했

다. 박현희 노무사는 “LG가 아무리 부정해도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노동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LG는 노동 존중 경영으로 전향하고 노조를 인정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진희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수록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LG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회는 4천 매니저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LG 그룹과 하이엠솔루션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려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위해 만든 온라인 모임 탈퇴 종용과 대표자 색출을 시도하고 지회가 조합원 공개 모집을 시작하자 노조를 비방하는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약 해지로 협박했다.

LG는 노조 간부에 대한 탄압도 끈질기게 자행하고 있다. 김진희 수석부지회장은 일방 계약 해지를 당했고, 문준호 사무장을 압박해 업무 해약서에 강제 서명하게 했다. 특히 문준호 사무장을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대법 판결대로 산재 유가족 채용 단협 시정명령 철회하라”

노조, 전국 열한 곳 노동청 기자회견 ... “노동부, 유가족에 저지른 패악질 사죄해야”



금속노조가 노동부에 산재 사망 유가족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사죄하고,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9월 15일 전국 열한 곳 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 사망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8월 27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단협 조항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사회 약자를 배려한 노사 자율협약’ 이라고 판결했다.

김동성 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인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일 일곱 명,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

며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본은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이 단협 조항을 악의로 왜곡해왔다. 노동부는 기생충 같은 자본의 앞이 노릇을 중단하라”라고 야단쳤다.

서범진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의 ‘나쁜 버릇’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이 단협 조항을 핑계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기사를 띄우면 부화뇌동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노동부는 보수언론이 2016년, 2018년에 근거 없이 이 문제를 늘어놓으면 바로

해명자료를 내서, 자신들이 이 위법한 단체협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홍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의 이런 행위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노동부도 똑같이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서범진 변호사는 “이 단협은 산재의 책임을 정부와 사용자가 회피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나서서 싸워 회사와 합의해 만든 조항이다”라면서 “노동부가 회사보다 못한 입장에 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노동부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관해 판결한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동선에 부합하며,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취지를 깊이 새기라”라고 충고했다.